

연중 제 4 주일
구라 주일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코 1,21).

기도서 338면 (B해)
제1독서: 신명기 18,15-20
제2독서: I코린 7,32-35
복음: 마르코 1,21-28

강론



부서지는 악마의 나라 위에 세워지는 하느님의 나라

강 덕 행 신부

마르코 복음은 그 서두(마르코 1,1~13)에서 복음이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아드님, 성령이시며,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세례자 요한은 구원의 조건을 알려 주시는 분이며, 갈릴래아의 나자렛 출신 예수께서 구원의 책임자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느님 나라 선포에 있어서 예수의 활동은 다양하다. 첫째로, 예수는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둘째로, 예수는 하느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죄악과 악령과 싸우시고 권위있는 말씀으로(마르코 1,27) 악령을 쫓아내시며,

셋째로, 예수께서는 권위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악령과 질병을 이기시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모으신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위의 둘째 부분에 속한다. 성서에 나타난 악령(마귀, 사탄)의 원뜻은 “적대자” 또는 “해롭게 하는 것들”이란 뜻이다.

성서는 인간생활이 악에 물들고 타락한 것은 하느님을 증오하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며 또한 예수께서 인간의 악한 의지를 바로 잡아서 하느님께로 인도하지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의지에 도전하는 어떤 막강한 힘에 대항하여 고난당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다(I요한 3,8).

악마는 우주의 이방인적인 존재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하여 질서가 있는 곳에 혼란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을 가져오는 존재이며, 강한 증오와 자만심으로 하느님께 대항하고 인간의 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며 특히 예수께서 만났고 십자가 위에서 이겨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령이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세상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포, 불안, 병고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능력과 신앙으로 사람들을 악령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정신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몸도 건강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정신을 바르게 하시며 하느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피로운 마음과 병든 몸을 소생시켜 주신다.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위로의 마을이란 뜻)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마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목적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악마의 나라 위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장수 천주교회)



나누어 먹어?

민주화를 해보겠다는 6·29 항복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4만세기만에 군정은 종식되나보다.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민주화가 드디어 시작되나보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의 민주감우행도 없어지고, 더 이상 최루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나보다. 부자와 형제가 정권안보 문제로 맞서는 일도 없어지려나보다. 얼마나 설레이는 날이었는가!

그러나 그것은 한 날의 꿈에 불과한 조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말았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구태연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술 더 떠서 컴퓨터 조작설까지 난무하더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어떠한가? 국정감사권에 비하면 이빨빠진 현판에 불과한 국정조사권 발동에도 정부 여당은 선뜻 응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디에 민주화를 논할 염치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가는 부산하기만 하다. 국민들도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간 높지 않다. 그런데도 그 꾀락시니는 석연치가 못하다. 아무리 눈앞의 이해관계가 크더라도 국민 앞에서의 약속 뒤집기를 콩 주어먹듯 하다니! 아직은 매듭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정치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협상아닌 야합의 정치를 보게될 것 같다.

유신이라 지속되어온 동반당선-소위 형님 먼저 아무 먼저-도 문제지만, 정국안정이란 미명아래 제1당에게 전국구 의석의 3분의2를 줄 수도 있다는 어느 야당의 발상에는 분통이 터진다. 나누어먹기식은 안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어디까지나 정당별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사표(死票)도 막을 수 있다.

숨 정 이 산책



주님의 제단에 오르며...

박 기 준(라우렌시오) 신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제단에 오르게 된 새 신부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청해 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가장 먼저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야 할 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한없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도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착한 목자의 길로 초대하셔서 계속 지켜 주시고, 마침내는 감사와 영광, 찬미의 제사를 봉헌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사, 가장 완전한 제사를 좋으신 우리의님께 봉헌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성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주교님과 선배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도우심과 인정으로 사제적인 자질과 품성을 갖출 수 있었고 또 그 사제적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부모님의 고마운 희생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고귀한 사제직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한 뒤로 근 10여년 동안 하루 24시간을 저희들의 사

제직을 위해 사셨던 부모님, 이분들은 앞으로도 생이 다 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착한 목자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걱정 속에서님께 기도를 올리실 것입니다. 이분들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향 자매들과 많은 특별한 은인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도움과 간절한 기도 덕분에 은총 속에서 서품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로 사제직에 오른 저희들은 그 보답으로 열심히 사제의 품위를 갖추면서 살아야 됨을 느낍니다. 선물로 사제직을 주신 하나님께는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제도적으로 어두움이 가셔지지 않는 이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님의 향기를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시편, 117).

시복 시성 청원자 5인 윤귀충, 권상현, 유항검, 유중철, 이순이

지난 1월 9일 전주교구 시복시성 청원(로마) 추진위원회에서는 초대 순교자 중에서 다섯분을 시복시성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떠했던 바늘이 들어가는 데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시성된 인사는 거꾸로 되었다. 옥(玉)에서 옥을 고르기가 여간 힘들지 않지만, 윤지충(바오로), 권상현(야고보), 유항검(아우구스티노), 유중철(요한), 이순이(루갈다) 다섯분을 뽑았다.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정을 갖겠으며 애정이 없고서야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는가.

윤지충 권상현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이다. 그리스도 교인의 삶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요한 17,11) 예수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다. 윤지충은 역사상 최초로 천주교 신앙을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변론한 분이다. 그는 법정에서 신앙을 고백하기를 천주를 내 아버지로 일단 알아 모신 이상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살아서진 죽어서진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배반하면 갈 곳이 없다 했다. 그는 아버지께 대한 효성으로 순종하며 살고 죽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느냐고 말한 예수의 제자였다(요한 6,18). 권상현 역시 윤지충과 같은 마음으로 순교하였다.

유항검은 이 고장에 첫 복음의 씨를 뿌린 사도였다. 그 한가지 사실로도 존경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모범이 있다. 그는 겸손을 강조하며 살았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 큰아들과 며느리의 동정 생활을 허락했다. 그는 아브라함의 겸손한 순종을 실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재산을 흔쾌히 봉헌하고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제헌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완덕(사랑의 덕)을 실현하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유요한과 이루갈다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마태 22,37~38)한 사람이다. 그 사랑으로 인간의 본능을 극복하였다. 동정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실천의 생활이 거룩한 것이다.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고(마태 26,4) 꾸준히 기도하며(골로 4,2)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다. 동정생활과 순교를 한꺼번에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토록 하였다.

시복시성 추진운동과 함께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은 유요한과 이루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물린 묘역을 개발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난 1월 8일 치명자산 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3월 5일(토요일) 치명자산 개발 기공식을 교향대사를 모시고 갖기로 하였다.

고농종묘농약사

각종 농약·씨앗·비료·농자재 염가판매
구 성모병원(상가)
전화 82-8468
야간 3-9225
박 동 왕(요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 홍균(베드로)

금성서비스 지정점

금성제일대리점

VTR·냉장고·TV·세탁기·오디오·가스렌지 등의 가전제품 일괄
할부판매 주부사원 모집
대표 이동근(안드레아)
전화 3-0740

염어로 노래·율동·역극·회화 등

사단 한국라보(LABO)

법인 회원 모집
모집대상 : 유치원생·국민학생·중학생
접수처 : 구, 서중로타리 (호남유변학원 내)
연구원 : 박경애(안젤라)
☎ 3-3284·72-4417
3-4766(야간)

교 구 소 식

1. 중·고등부 교리교사 연수회 : 2월 1일(월) 오후 1시30분~2일(화)
 장소-천호 피정의집, 대상-중·고 교리교사 및 예비교사, 회비-8천원
 집결-가톨릭센터, 오후 1시30분
2. 가톨릭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릴레이사 : 일시-2월 1일 오전 10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사회복지관
3. 수녀연합회 모임 : 일시-2월 1일(월) 오후 1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강사-박정일 주교님 ※ 고백성사 있음
4. 2월중 다락방 모임 : 2월 4일 오후 7시, 장소-전동성당, 인도-이수현 신부님
5.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일시-2월 4일(목) 10시~16시30분, 장소-덕진천주교회
 강사-하 안토니오 신부님·정영환 회장님, 준비물-미사도구·도시락
6. 지난해에 누락되었던 단체 지도신부를 알립니다

단 체 명	성 명	단 체 명	성 명
약 우 회	김동준 신부	실 업 인 회	김환철 신부
성 모 기 사 회	효자동 주임	푸 른 군 대	덕진 주임
채 팔 라 레	박인호 신부	행복한가정운동	사 목 국 장
근 로 자 의 집	창인동 주임	간 호 원 회	김동준 신부

♣ 잡 관

나병, 누구의 죄인가?

나병(癩病)! 산재로 몸을 썩혀 마디 마디 등강나는 공포의 이 질병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렸을까?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인 줄 아느냐? 아니다.」(루가 13, 2~5)라고. 또 말씀하신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요한 9, 1~3). 그렇다! 그들이 그처럼 험악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도, 그들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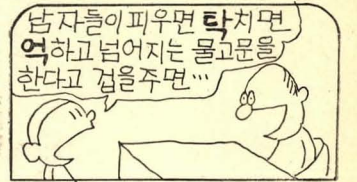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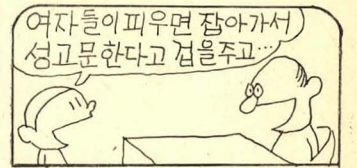
이는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의 악, 세상의 죄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 원죄 이전의 행복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이 예수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죄에 해방되어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되찾게 되었다. 바로 이 기쁜 소식, 즉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죄로부터도 해방되어 구원된다'는 이 소식이 참으로 진실임을 열심히 나환자들을 통해 증명된다.

신의 저주를 받은 듯한 처참한 물골들... 그러나 구원된 자로써의 행복한 그들의 미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행도 곧 은총임을 알게 한다.

코도, 눈썹도, 발가락도, 손가락도 없는 추한 모습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나 되는듯 하느님을 찬양하는 환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마음엔 평화가 없으며 자신의 입이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함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이라 말하려는가?

나환자, 그들보다도 더 큰 십자가를 꼭 져봐야 회개하려는가?

요심이 (756) 김병오



□ 1분 명상

가십시오.
 당신의 선행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베카
명동피부과의원

전주시 서노송동 631-3
 (코아백화점 앞)
현대 미용 학원
 김 금 순
 ☎ 주 4-9206
 야 74-1383

응변을 배웁시다. 발표력을 기릅시다

88. 유치반 원아모집 및 방학특강반 모집

호남응변미술학원(구 서중학교 로타리) 3-3284
 새호남응변미술학원(전주역 앞) 4-3948
 효자응변종합학원(효자동 쌍용아파트 앞) 83-8331
 원장 유병철(배드로) 원감 빅경애(안젤라)

정기총회 소집공고

신학법 제21조및 정관 제32조에 의거 1988년도 제15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바랍니다.

1. 개최일시: 1988년 2월 7일(일) 오후 1시30분
2. 개최장소: 천주교 전주 중앙성당
3. 부의안건 4. 경품추첨 및 기념품 증정

*총회참석시 제출된 인감과 통장을 지참바랍니다
 1988. 1. 21
 전주 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정 생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앙)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환영합니다: 김진룡(안토니오) 신부님
환영식-오늘 공식미사 후
반미사안내: 2월3일 오후 2시, 12반-김덕자(96283)
주의 봉헌축일: 2월2일(화), 조축성 2일 저녁미사중
본당에서 1년간 사용할 제대초를 봉헌받습니다
1. 구과주일: 오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2차헌금이 실시됩니다
2. 원장수녀님(문말지나) 영명축일: 1월 30일
하야가다 수녀님 영명축일: 5일(금) 기도 바랍니다
3. 유아세례: 5일(금) 어머니미사 후
사무실에 당일 10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4. 공소미사: 오늘 오후 4시30분
5. 모임: 재속행제회-오늘 오후 2시
성심부녀회-5일(금) 어머니미사 후
사목회-다음주일(7일) 공식미사 후
자모회-다음주일(7일) 오후 3시
6. 중앙신용협동조합 제15차 조합원 정기총회: 다음주
일 오후 1시30분, 조합원을 빠짐없이 참여바랍니다
7. 성탄반(87년) 영세자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063,010원 교무금: 4,089,999원

(금양)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예비자 입교식: 7일 공식미사 (1인 1명 인도합니다)
1. 오늘은 구과주일: 특별헌금 있음
2. 금성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복사단 해설자 연수: 오늘 공식미사 후
4. 청년성가대 총회: 오늘 오후 2시
5. 사목회: 차주 공식미사 후
6. 성시간: 2월4일 저녁 7시
7. 남성28차 푸르실로 교육참가
장훈식·장수택·나인구·김종완
8. 푸르실로 올드래야 총회: 2월7일 저녁 7시
9. 금주복사: 이창성·김유기, 차주-이대용·장수택
10. 금주봉헌: 강수원 부부, 차주-이해룡 부부
11. 미사안내: 구세주의 모친pr, 차주-매피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699,020원 교무금: 883,000원
신축헌금: 20,0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오늘은 구과주일: 나환자를 돕기 위한 2차헌금 있음
1. 오늘의 모임: 진복회-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2. 금주 모임 행사: 까리파스 자모회-2월2일 오후 2시
성심부녀회-2월3일 오전 10시
성시간-2월5일 오후 7시
3. 신자 1일피정(푸른군대주관): 2월4일[오전 10시부터
4. 작년도 '설기가지' 회수합니다
2월 14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5. 청년연합회 동계단합대회: 2월6일~7일
청년 제단체 회원들 많은 참석바랍니다
6. 성당 천정등 도움주신분: 연회동 송루시아 감사
7. 금주전례: 해설-이석규, 복사·독서-베드로회 주관
기도-덕진13반
8. 금주 본당청소: 결백하신 어머니pr-6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635,660원 교무금: 760,5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혈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갈림과 만남: 권이복(베네딕도) 신부님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소순형(베르나르도) 신부님, 진실으로 환영합니다
1. 제대초 봉헌: 오늘(31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2. 동산신협 정기총회: 2월4일 오후 1시30분(조합원 통
정, 입장 지참), 장소-동산천주교회
3. 청년연합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여성단체 합동연총 피정안내: 일시-2월 28일~29일
천호 피정집, 회비-1만원, 신청-각 단체장님
5. 모임: 애령회-차주 공식미사 후

- 6. 금주 구역모임: 2일 모임-농원(한기철), 팔복1(임
선홍), 3일 나눔잔치-원동, 5일 모임-팔복2·4(한
상갑), 원반회(조용기)
7. 예비자교리: 성인-목 오후 7시30분
중·고생-토 오후 6시
8. 금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이동열 ②최병길
차주전례: 해설-김택천, 독서-①조용기 ②전점순
□ 지난주 봉헌금: 292,580원 교무금: 590,500원
수요헌금: 61,13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회장 소병을

- 환영합니다: 동정성모회 박 스텔라스티카, 리피아,
김 율리아 수녀님
☆ 수고하셨습니다: 박 라우렌시아, 남 실비아 수녀님
1. 오늘은 구과주일: 나환자를 위해 정성을 드립니다
(2차헌금)
2. 푸르실로: 남성28차-김은식·박세영
여성25차-김영이·김순덕
3. 모임: 대전회-공식미사후 강당, 성심부녀회-2월 5-
일 오전 11시, 까리파스회-2월2일 오후 2시
4. 예비자 접수: 2월6일까지, 사무실
5. 미수금: 87년 교무금 완납, 88년 교무금 신일바람
6. 청년 레지오단원 모집: 사무실에 문의바랍니다
7. 빈철푼시오 창립총회: 2월2일 저녁미사 후
8. 구역미사 안내: 미산리-2월4일 저녁 8시
9. 금주전례: 해설-이기림·이진창
독서·기도-사랑하을 모친pr 주관
10. 금주 본당청소: 창주주의 어머니pr-6일 오전 11시
□ 지난주 봉헌금: 248,200원 교무금: 420,00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나병환자를 위한 구과주일: 2차헌금 있음
1. 2월2일은 주의 봉헌축일입니다: 조축성 준비-제단
용 봉헌, 가정용 초 사무실에 접수(1,200원)
2. 예비자교리(2월반) 시작: 주일반-7일 오전 9시,
복요일반-11일 오후 8시
3. 여성24차 푸르실로(4일~7일): 교혜자·고형열
4. 이데레사 수녀님께서 피정중입니다: 기도부탁합니다
5. 성시간(4일 7시미사): 성계장복도 있음
6. 6일: 부녀회-오전 10시, 구역장회의-오전 11시
7. 금주 본당청소: 화-자비의 모후, 토-상아보람
8. 미사안내: 평화의 모후, 차월-자비의 모후
9.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철수·문봉래
봉헌·기도-이귀례·김영주
차주전례: 해설-강원모, 독서·기도-김경주·김숙현
봉헌·기도-나병열·조현자
□ 지난주 봉헌금: 471,165원 교무금: 341,0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3-9236

- 1. 성전 건축위원회 모임: 31일 공식미사 후
2. 푸르실로스타 모임: 2일 저녁미사 후, 참석바랍니다
3. 구역장님 모임: 4일 어머니미사 후
4. 다음주 모임안내: 사목회 정기월례회의
5. 새영세자 고백성서: 7일 미사전에 보세요
6. 오늘은 구과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음입니다
* 하루에 한쌍씩 성경을 읽읍시다
8. 베소라성서(기쁜소식) 연구: 3월 18일부터 시작함
원장수녀님께 신청바랍니다
9. 신임교사: 수고하시겠습니까
서원철·장재민·윤선아·이은숙·이승은
10. 신학대학 및 수도원(수녀원)에 가실분은 1년 전에
본당신부님과 면담바랍니다
11. 혼인하실분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님과 면담바랍니다
12. 금주전례: 해설-안남근, 독서·기도-나동진·이신욱
봉헌-경화중씨 부부, 안내-양기춘·함권술
차주전례: 해설-진길자, 독서·기도-장세돈·최문자
봉헌-임병현씨 부부, 안내-안남근·나동진
□ 지난주 봉헌금: 499,055원